

## 기분 좋게 살 수 있는 임오년 새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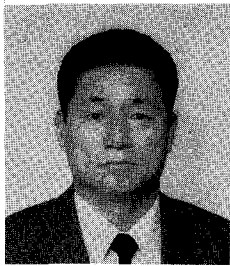
**은** 나무를 덮고 있던 잎새들이 그 동안의 애환을 하나씩 떨쳐버리고 앙상한 가지만을 남긴 채 신사년(辛巳年) 한해를 아쉬움의 뒀안길로 접어두고, 희망을 예고하는 임오년(壬午年) 새해가 밝았다.

2001년 11월 2일에 개최되었던 전국 육계인대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다. 그 먼길을 관광버스에 몸을 싣고 속속들이 모여든 자랑스런 육계인 여러분을 잇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대회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전국에 계신 육계인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또한 행사 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육계인들이 똘똘 뭉쳐 단합된 의지를 보일때,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을 것이라 믿는다. 마음 같아서는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모쪼록 임오년 새해에도 전국 육계인 가정에 매일 솟는 태양처럼 건강과 사업이 날로 번창하길 기원하는 바이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자연재해로 인해 쓰라린 가슴을 위로하듯 다른 해에 비해 약간의 가격상승은 미래에 전국 육계인이 더욱 단합하라는 신호탄이라 믿고 싶다.

대한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회에서는 지난해 당면과제로 농가에 2차 백신(ND)을 지원토록 요구하였으며, 육계인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좋은 결실을 얻게 되었다. 또한 백신 접종율이 80% 이상이 되면 살처분 보상 지원도 약속하였고, 접종율도 많은 향상을 보이고 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육계인 모두의 성원과 끊임없는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최 길 영**  
본회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영남농장 대표

그리고, 계열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육계 농가를 위해 지난해 5월 하순 천안 소재 상록 리조트에서 협회 관계자와 학계, 회원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육계사육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만드는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아직 몇가지 과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금년에는 새로 만든 육계사육표준계약서를 육계인여러분에게 발표하고 각 계열회사와 유사계열사에 홍보하여 육계인의 권익보호에 노력할 계획이다. 우리는 임오년에도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공생 공존(共生共存)하는 육계인이 되어 손잡고 뛰어야 하지 않겠는가?

전국 육계인대회가 우리의 입지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듯이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농림부가 펼쳐놓은 정책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양계산업 발전대책을 육계산업의 미래지향적인 목표로 두고 닭고기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수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가 난재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까다로운

규격 품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선결 조건이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식품 평가를 받아야 하고 질병을 없애야 하는데도 현실이 그렇지 못하고 매년 질병과의 전쟁을 하고있는 농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보니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질병퇴치를 위해 농림부에서는 현실적으로 백신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다.

특히, 육계업에 종사하는 모든 관련인들은 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동참해야 육계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도 주지해야 될 사항이다. 본회에서는 지난해 못다한 표준육계사육계약서, 양계자조금 의무 입법화, 한국계육협회 생산자단체 움직임 저지 등 육계산업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육계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정책을 개선하는데 힘을 기울여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육계분과위원장으로 전국 육계인들을 위해 맡겨진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늘 미흡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앞으로 협회를 구심점으로 협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변치않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임오년 한해에도 여러분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는 협회가 될 것을 약속드리는 바이다. 임오년 한해는 기분 좋게 살수 있는 해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덕내에 늘 평안함과 건강이 늘 함께하고, 사업이 번창하길 빈다. **양계**

